

## [세종의 셀프 리더십]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무슨 일인들 능히 하지 못하리오  
[若用心力, 何事不能也?]." (세종실록 22/7/21)

세종은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예 부흥을 일으킨 대표적인 임금으로, 조선시대 정치가와 지식인들의 준거 군주였다. 특히,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正祖)는 “우리나라의 예악문물(禮樂文物)은 모두가 세종시대에 만들어졌다”, “선대 왕조들께서는 언제나 『세종실록』에 있는 글귀를 외우시고 그 규례를 적용하곤 하셨다”, “세종대왕은 실로 우리 동방에 태평만세의 터전을 닦으신 임금”이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통에 세종을 활용하였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치적 중에서는 세종조(世宗朝)가 가장 훌륭하여 모두 후세의 법이 될 만하다”며 기대승(奇大升), 이이(李珥), 송시열(宋時烈)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도 세종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세종의 사회생활 시작은 어떠했을까? 그는 처음부터 잘했을까? 그에게는 어떠한 난관이 있었으며, 그 난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세종은 적장자가 아닌 셋째 아들이었고, 형 양녕대군이 앞서 15년 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기에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아버지 태종은 상왕(上王)으로 곁에 있으며 정책 결정에 큰 목소리를 냈기에 4년간 ‘인턴 임금’ 노릇을 해야 했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자신보다 나이와 경륜이 많은 신하들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맹사성은 아버지 태종보다 7세, 세종보다 37세 위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된 지 30여 년 밖에 되지 않았고, 여진족과 왜구는 국경을 위협했으며, 매해 가뭄 혹은 홍수로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 내우외환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양녕이 즉위했으면 살기가 좋았을 것’이라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인기 없는 임금이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세종 재위 8년 째 되던 해에는 연쇄 방화로 한양 내의 2천 여호가 연소되고,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간승리’를 이루어낸 ‘인간 이도李陶(세종)’의 모습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대비해보고, 아울러 그의 꿈과 열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 강의 내용

1. 세종이 넘어야 했던 허들
2. 세종과 나의 꿈
3. 세종과 나의 열정



## [세종식 소통 리더십]

“전하(세종)는 무릇 국사에 있어 모두 대신과 의논한 연후에 시행하셨다  
[殿下凡於國事，悉皆議諸大臣，然後施行。].” (정인지, 세종실록 30/7/19)

세종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 건국 후의 정치경제적인 혼란기에 불과 32년의 재위로 동양의 르네상스, 첨단기술강국, 농업생산성 400% 향상으로 신바람 나는 행복한 나라를 이뤘다”며 손욱 前 ㈜농심 회장 등 경영 일선에서도 세종에 주목하고 현시대 우리들의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종의 업적과 긍정적인 평가는 바로 그의 소통능력에서 기인했다. 다음과 같은 세종식 소통의 열 가지 키워드를 통해 현재 우리들이 안고 있는 불통(不通)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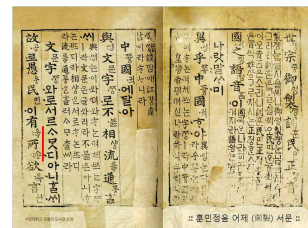
- 초대식 소통 (invitational communication)
- 수신(修身) 소통 (moral-training communication)
- 인용식 또는 고전상고(古典詳考)식 소통 (quotative communication)
- 군사(君師) 소통 (Master-King communication)
- 하향온정(下向溫情)식 소통 (warmhearted top-down communication)
- 여론수렴식 또는 상향(上向)식 소통 (bottom-up communication)
- 밀어붙이기식 소통 (pushing communication)
- 폐쇄적 소통 (closed communication)
-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소통 (advantage-taking communication)
- 그리고 전문성과 실천력의 결합

(논문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리더로서의 소통능력, 2012, 오채원』 중에서)

세종의 즉위 제일성(第一聲)이 “함께 의논하자”였을 만큼 그는 소통에서 현안의 해법을 구했다. 세종은 재위 전반에 걸쳐 대체로 열린 소통을 수행하는가 하면, 시기별로 각각 다른 소통 능력을 보이는 소통 전략가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의 소통적 특성을 살펴보고,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세종과 소통하고 혜안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 강의 내용

1. 리더의 소통법 : 세종대의 시기적 구분 및 이에 따른 소통 스타일
2. 팔로워의 소통법 : 간언(諫言)의 12가지 방법
3. 나의 갈등 유형 진단 및 해결법



## [세종의 가족 소통 이야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비록 크다 하겠으나, 집안 다스리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다. [治國平天下雖大, 齊家最難。]” (세종실록 2/10/11)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모님-태종과 원경왕후 부부, 놀기 좋아하는 사고뭉치 큰형 양녕대군, 욕하는 마음에 머리 깎은 둘째형 효령대군, 목소리 큰 외삼촌들-민무구 형제, 비만아 잘난체 쟁이 충녕대군. 어찌 보면 세종은 문제 가정의 문제아였다.

그러나 세종이 장성하여 일군 가족은 달랐다. 위기의 부부였던 부모님은 세종의 극진한 효도 덕에 화해를 했고, 폐세자된 큰형 양녕과 둘째형 효령은 세종의 보호 속에 천수를 누렸으며, 세종과 부인 소헌왕후는 금슬이 좋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영특하게 성장하여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측우기 발명가로 문종이 활약하고, 훈민정음 창제 및 보급에 문종, 수양대군(세조) 그리고 정의공주 등 자녀들이 일조하는 등 세종대의 조선은 ‘가족 기업’이 되기에 이르렀다.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단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세종 가족의 캐릭터를 살펴보고, 세종의 가족 소통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나의 소통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 강의 내용

1. 우리 가족 돌아보기
2. 이도李陶 씨(세종) 가족 이야기
3. 이도 씨와 자녀의 공부법



## [추천사]

\_교수님의 강의로 인해 행복했기에, 제가 교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초빙하여 학부모님께도 들려드렸습니다. 다들 좋아해주셔서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_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프라이드와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_오늘 들은 이야기를, 역사 과목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 아이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_딱딱하지 않은 강의가 좋았습니다. 교수님의 밝은 미소, 교육생과 소통하는 태도도 좋았습니다.

\_찬찬히 세종의 리더십을 전해주시는 교수님에 이끌려 저도 세종앞이에 동참합니다.

\_사실 교수님이 젊으셔서 리더십 그것도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하실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세요.

(강사 프로필은 별첨합니다.)